

영성훈련 '아가피아'

성령충만한 은혜로 다시 거듭난 지원자
봉사와 수고로 도리어 은혜받는 봉사자



남자 1회 수료자와 봉사자 - 1999



여자 1회 수료자와 봉사자 - 1999

연동교회는 1998년 영성훈련부의 발족에 이어 아가피아란 이름의 트레스 디아스(T.D.)를 출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사는 교인과 교회를 목표로 한 트레스 디아스는 197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시작되었고 사랑(Agape)의 낙원(Utopia)을 합성한 아가피아(Agapia)는 이성희 목사가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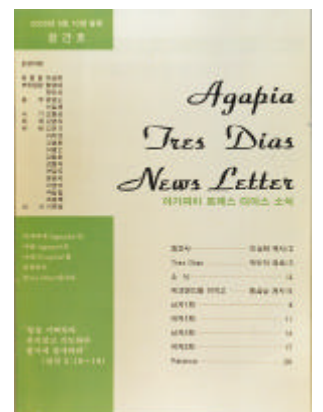
제1회의 경우, 남자는 1999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강화수 양관에서 열렸다. 지원자 43명(본교인 25·타교인 18)에 영적 지도자 이성희 목사 및 황영태 부목사, 려타 박인석 장로 등 봉사자 53명이 참여했다. 여자는 동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지원자 48명(본교인 27·타교인 21)에 봉사자 50명이었다.

아가피아 트레스 디아스 참가자 통계

연도	월 일	회수	수료자	봉사자
1999	8.16-19	남 1회	43명	53명
	12. 6- 9	여 1회	48명	50명
2000	2.21-24	남 2회	53명	55명
	5. 1- 4	여 2회	50명	57명
	6.26-29	여 3회	54명	50명
	8.14-17	남 3회	43명	59명
	10.23-26	여 4회	53명	52명
2001	12.18-21	남 4회	45명	53명
	1.18-20	비다니에바 여 1회	40명	51명
	3.19-22	여 5회	48명	44명
	5.21-24	남 5회	47명	48명
	8.13-16	남 6회	49명	58명
2002	10.29-11.1	여 6회	62명	53명
	2.25-28	남 7회	43명	59명
	5.20-23	여 7회	60명	53명
	8.12-15	남 8회	48명	59명
2003	11.18-21	여 8회	60명	53명
	2.17-20	남 9회	48명	49명
	5.19-22	여 9회	55명	51명
2004	8.11-14	남10회	64명	60명
	11.17-20	여10회	51명	52명
2004	2.16-19	남11회	49명	54명
	5.17-20	여11회	57명	57명
	8.16-19	남12회	49명	57명
	11.15-18	여12회	54명	54명

눈물과 감격의 천국잔치로 알려진 연동교회의 트레스 디아스는 2004년 말까지 남자 12회와 여자 12회,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비다니에바 여자 1회 등 총 25회에 1,27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오늘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국적인 지원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가피아
월간지
창간호
- 2000



권사 안수

1930년대부터 여성안수를 주창한 연동교회 1999년 45명 권사에게 최초로 안수 베풀어



1999년 12월 5일에 1992년 이전 임직한 14명의 권사(사진 : 상)와 한 주일 후인 12일에 1993년 이후 임직한 31명의 권사(사진 : 하)에게 안수를 베풀었다.(사진 : 중) 이는 동년 9월 제84회 예장 총회에서 교회헌법을 개정함에 따른 조치였다. 1933년부터 총회는 여성안수에 대해 거부입장이었다. 그러나 연동교회 교인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마리아 회장 (7-10대 : 1934~1938)과 신의경 회장 (23-24대 : 1962~1967)은 여권운동 차원에서 여성안수를 끈질기게 주창했다. 1973년 3월 연동교회 당회는 여장로 제도의 현의안을 서울노회에 제출했으나 동년 9월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자구책으로 1977년 11월부터 권사가 단상에 올라가 성경봉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드디어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안이 전격 통과됐다. 그래서 1996년 12월 연동교회 최초로 김기환·이현정 두 권사가 장로로 장립했다.

제1차

장희순
이영희
최정녀
이신애
황삼남
이기훈
박문희
박연희
김동선
이해순
임난혜
육영애
김성숙
박선복
(14명)



제2차

김성실 박미자
박옥근 황명자
소옥렬 윤운자
박정옥 연길자
최영옥 이명자
유현숙 김정숙
이명복 황경림
이정숙 양정자
허문정 이영숙
기은실 한임숙
조옥진 김경옥
박찬선 황은희
김현정 김혜화
이권선 김정자
방선자 강은희
박은애 (31명)



연동유치원

서울 유치원 중 교육내용 상위권 2004년 집계 졸업생 총 1천585명

1981년 탁아소와 유치원을 전충한 교육 선교 차원의 연동어린이집으로 출발한 연동유치원은 2004년 2월까지 총 1,58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5년 기본생활 습관지도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서울시내 유치원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했고 1996년 대대적인 내부수리를 단행해 견학장소로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 힘을 얻어 3학급 90명으로 증원했다. 1999년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뒤 그 이듬해 15인승 승합차를 새로 구입했다. 1984년 원감으로 부임해 1992년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윤현숙 권사가 2004년 2월 근속 20년을 맞이해 정년퇴임, 그 후임으로 오영순 원감이 대를 이었다.
상 : 원생들의 해맑은 모습 - 2000
하 : 왼쪽은 졸업기념 - 2001, 오른쪽은 고구마 캐기 현장학습 - 2003



괴산군 전도 봉사

복음의 불모지에 3년간 집중공략 다수 참여한 '와서 우리를 도우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월의 무더위 속에 4일 내지 5일 동안 연동교회는 청년1·2부를 주축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충북 괴산군을 대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괴산군민을 주님의 품안으로'란 주제를 내걸고 군민회관에서 전도집회와 지원교회인 덕평교회(김동현 목사)를 비롯해 9교회에서의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노방 및 축호 전도와 의료봉사·이미용봉사·경로잔치 등으로 헌신과 사랑의 열정을 불태웠다. 첫째의 경우 2천5백여만원이 소요된 범교회적인 이 행사에 전도부·영성훈련부·남선교회·여전도회와 성가대·남성중창단·하늘소리찬양단 등에서 250여명이 참여, 3년간 복음의 씨를 한껏 뿌렸다.

군민회관 1·2층을 가득 메운 전도집회에서 설교하는 이성희 목사 - 2000



여름성경학교 지도(괴산남교회) - 2000



축호 및 노방전도에 나선 대원들 - 2000



저녁 늦게까지 이미용 봉사의 현장 - 2001



환자를 진료하는 박춘근·강재성 집사 - 2002

교회당 정문

대문과 문턱 없앤 동네 사랑방 창립 이래 정문 일곱번째 옮겨



교회 전면 개축공사 준공 감사예배 - 2000

2000년 10월 22일 교회창립 106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앞 뜰에서 교회전면 개축공사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성희 목사의 말씀(거룩한 뜰)과 경과보고 및 축도에 이어 테이프 절단을 했다.

1998년 1월 도시계획에 의해 교회대지(77.7평) 및 수위실 등 건물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진입 부분의 위치변경과 대지 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해져 O.C.A가 설계하고 M.A.가 시공을 맡아 대문을 없애고 계단을 설치해 외부에 교회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개축 이전의 진입로 - 1998



(백귀선 집사 촬영)

새로 단장한 진입로 - 2003



1980년대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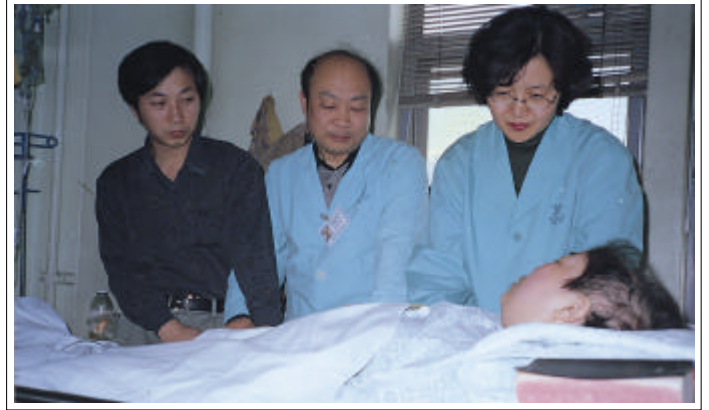
2000년대

호스피스 천사들

숨겨두는 순간까지 손잡고 기도 유가족과 치유과정도 함께 지켜



말기환자를 돌보는 김창호 집사 - 2000



환자 앞에서 기도하는 홍광의 · 김영선 집사 - 2001



세브란스 호스피스 개원예배 중 찬양(임순기 · 홍광의 집사) - 2001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자원봉사, 연동교회 호스피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1967년 영국 런던의 크리스토퍼에서 비롯된 호스피스는 1987년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와 1988년 세브란스 호스피스 제2기로 김창호 집사가 수료하고 1989년 1회 바자회에 제5·6여 전도회가 참여함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김연수 집사가 호스피스 유가족 천지동우회를 창설하고(1991) 김창호 집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후원을 조직했다.(1992) 1997년 연동교회(사회부)에서 세브란스 호스피스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1998년 제2회 자선음악회를 연동교회당에서 개최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의 밤·자원봉사자 신년하례예배·유가족 모임 등 크고 작은 일에 연동교회가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편의를 제공했다.



'호스피스의 밤'에 연동 호스피스 천사들의 찬양(연동교회당) - 2002

연동 호스피스 천사들

- 강은경 권옥선 김영선
- 김정숙 김중문 김창호
- 김학수 김홍순 류옥순
- 박삼길 백수영 신광선
- 오청호 유명숙 윤명순
- 윤은미 이수연 이종춘
- 이창희 임순기 임종려
- 장영순 조규환 조인찬
- 최정숙 홍광의

장로 장립(3)

상 : 이재몽 · 배영복 장로 2001
 중 : 양호성 · 진중환 장로 2003
 하 : 이길재 · 신중식 · 박춘근 · 김창호 장로 2004



① 배영복 장로 ② 이재몽 장로



① 진중환 장로 ② 양호성 장로



① 신중식 장로 ② 이길재 장로 ③ 김창호 장로 ④ 박춘근 장로

하나님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오후예배 그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



주일오후예배 찬양 기념 - 2004

호산나찬양대

2002년 4월 음악부(부장 : 차규장 장로)의 노력으로 주일 오후예배 찬양대의 명칭을 호산나 찬양대라 명명했다. 그 동안 연못골·부용·계일 세 찬양대가 교대로 담당하며 오후예배 찬양대라 호칭했었다. 이때 대원은 40여명, 대장은 최규석 집사, 지휘는 신경숙 집사(음악감독), 반주는 세 찬양대의 반주자인 김지리·김경아·김행미 집사였다. 그 이후 지휘는 김현숙 집사, 대장은 이명자 권사(2004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요일예배 찬양 - 2004

남성중창단

1991년 10월 27일 연못골남성 성가단이 창립됐다. 이날 '순교자의 노래' 외 5곡을 발표한 성가단(단장 : 김한극 장로)은 20여곡을 확보하고 테너·베이스 17명으로 구성해 친목과 전도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일명 남성합창단, 혹은 남성중창단으로 부르기도 한 이 성가단을 위해 교인들로 구성된 후원회(회장 : 최문규 집사)가 조직되는 등 활동이 돋보였다.



아가피아 세큐엘라 찬양 - 2003

살롬중창단

1998년 5월 창단해 7월 여전도회 월례회에서 첫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그 후 다섯번째 수요일 찬양을 맡게 되고 2004년부터는 매월 둘째 수요일 찬양을 전담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아가피아 세큐엘라와 동대문경찰서 성탄예배 및 올림픽선교회 창립예배 등 교회 안팎의 찬양에 나섰다. 대원은 준단원 포함해 15명이며 지휘에 노은주 권사, 대장에 박미자 권사이다.